

AI 에이전트, 비서 이상의 존재?... 명령반응 수준에 머물러

네이버·카카오 등 연내 출시 목표
기존 AI 비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의도 파악·맥락 이해 단계부터 '한계'
일반 소비자 활용까지 시간 필요

IT 업계가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를 차세대 기술로 띄우고 있지만, 정작 일반 이용자에게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비서 그 이상의 존재'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가능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우려와 함께, 연이어 출시되는 제품들이 과연 충분한 기술적 차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회의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개인 이용자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미지.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기존 AI 비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6일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연내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설명하는 AI 에이전트의 기능 대부분이 실상은 기존 AI 비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정 관리, 예약 제안 등 능동적인 기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기술적 기반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게 업

계의 시각이다.

2022년 공개된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에이닷(adot.ai)'은 12종의 생성형 AI 모델을 탑재했지만, 기본 작동 방식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다. 예컨대 이용자가 다음 날 일정을 묻더라도 정보가 부족할 경우 장소를 추천하거나 예약을 대신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제안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세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한계가 남는다.

올해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 역시 별도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지만, 기술적 완성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AI 에이전트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맥락에 따라 정밀하게 해석하는 언어 이해 능력,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작업 실행력,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문제가 꼽힌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모레 미국에 갈

준비를 해줘"라고 말했다면, AI 에이전트는 여권 유효 여부 확인→일정 점검→항공권 검색 및 예약→숙소 추천→예산 고려한 옵션 제안→결제까지의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 출발지, 선호 항공사, 여행 목적 등의 개인 맥락까지 반영돼야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이러한 작업 흐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도 파악'과 '맥락 이해'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사용자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나 전후 관계를 해석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는 '지능형 비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실상은 AI 비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용(B2B) 환경과 달리, 일반 소비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인 활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 달성할 것" 배달의민족, '올해 외식업 트렌드' 발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AX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도약
올해 AX 사업 본격적인 도약점 될 것"

KT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 페달을 밟으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선언했다.

김영섭 KT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에 앞서 박효일 전략실장은 AI 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성장, B2C AI 서비스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 2024년 경영전략을 소개했다.

정우진 사업컨설팅부장은 "KT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



KT 김영섭 대표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KT

비스를 제공하는 'AX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며,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점이자 KT의 기업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의결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6조4312억원, 영업이익은 8095억원이었다. 4분기 배당금은 주당 500원으로 결정됐으며,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

KT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당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로는 권우영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김용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재선임됐다. 감사위원회에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현 이사가 선임됐다. /김서현 기자

'빙과류·국밥·저속노화' 선정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을 발표하고 올해 식품·외식업계의 화두로 '시즌리스 아이스', '뉴웨이브 국밥', '저속노화'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전문가들이 함께 뽑은 유행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식업 동향을 분석해 가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시즌리스 아이스는 계절을 잊은 빙과류로, 추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이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인기를 끄는 소비트렌드가 포착됐다고 배민은 설명했다.

국밥에도 새 바람이 일었다. 이색적인 식재료를 얹은 국밥을 세련된 고급 식기에 담아내고, 가게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꾸민 국밥집들이 등장한 것. 이러한 '뉴웨이브'가 외식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MZ(198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략했다고 배민은 설명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저속노화 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 외식업 트렌드다. 저속노화와 관련한 키워드를 배민 앱에서 메뉴명으로 활용 중인 가게가 지난 4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도시락 카테고리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김현정 기자 hjk1@



◀ 이색적인 식재료를 인기를 끌고 있는 '안암'의 돼지국밥. /배달의민족

과기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전국 355개 구역 정비작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355개 구역에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전주 15만여 본 대상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지중화하는 작업이다. 도로나 건물 외벽에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정비계획에서는 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을 포함해 총 15만3673본이 대상이다. 특히 도심의 과밀한 전기통신설비와 위해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크레인 차량이 통신주를 들어받아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위해설비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를 파지 않고 통신관로를 묻을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뤼튼, 830억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

누적 투자유치액 약 1300억 달해

토종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뤼튼이 800억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AI 서비스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83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B 투자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인 굿워터캐피탈이 주도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캡스톤파트너스, 우리벤처파트너스,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앤틀러, Z벤처캐피탈(ZVC) 등이 참여

했다.

이번 투자로 뤼튼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하게 됐다. 국내 AI 스타트업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는 최초로 누적 투자 1000억원을 넘겼다.

뤼튼은 실사용자 기반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비스 개시 1년 10개월 만의 기록으로, 토스(3년 3개월), 당근마켓(2년)보다 빠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출 역시 캐릭터 챗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10억원, 12월 2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